

# 가정 예배 모범

- 2021\_09\_12\_장기중앙교회

## 매일성경 9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제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힘을 주소서.

###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갈라디아서 5:16-26

###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바울은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두 반대되는 소욕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두 소욕은 무엇이며 우리를 각각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바울은 신자의 삶을 이끄는 두 가지 소욕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신자는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인간의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신자 안에는 잔존하는 죄와 욕망이 있습니다. 이 두 소욕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자도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욕심과 죄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모습은 없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열매 맺게 합니다. 성령님은 신자의 내면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우리는 끊임 없이 옛 자아를 못 박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성령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됩니다. 따라서 매일 옛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